

16일 출가절 · 23일 열반절 조계종 매년 얼마나 출가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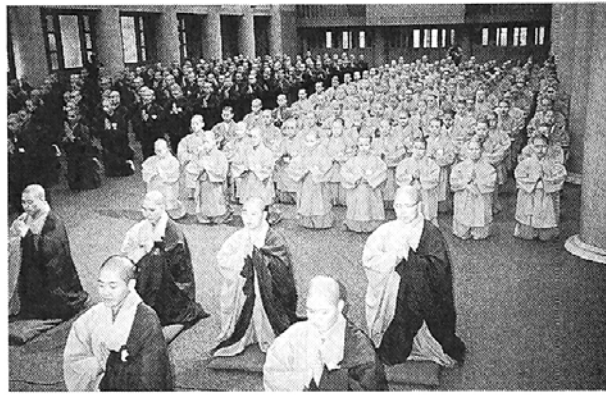
“한해 400여명 산문 들어선다”

“부모형제와 이별하고 출가한 사람은 욕망을 쉬고 애욕을 끊어 마음의 근원과 법의 깊은 이치를 알아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열반으로 가는 첫걸음 출가의 의미를 새기면서 매년 청정비구의 길을 선택하는 불제자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본다.

한국불교 전체승려는 3만여명이며, 이 가운데 대표적 비구중단인 조계종의 승려수는 1만3천3백87명(93년)으로 불교종단 가운데 가장 많다. 조계종 승려수는 지난 72년 1만3천51명, 83년에는 1만3천1백46명이었으나, 매우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출가에서 열반에



◇부처님의 길을 잇기 위해 번뇌에 얽매인 속세의 생활을 버리고 부처님전에 호쾌합장한 스님들. 사진은 조계종 시미(니)계 수계식 장면.

“욕망 쉬고 애욕 끊어 열반에 이르오리”

해마다 총숫자 변화없어 환속수 짐작 가능

이르는 길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91년에서 93년까지의 출가자는 모두 1천1백92명에 이른다. 따라서 자연사 인원을 출가자의 절반으로 친다면 6백여명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유는 출가의 길을 걸다가 환속하기 때문이다. 환속하는 경우에 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어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91년 이후 지난 해까지 출가자는 모두 2천6백여명으로 년평균 4백34명이다. 입산에서 수계까지의 과정도 만만치 않다. 조계종은 출가사찰에서 6개월 동안 기초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한해 1개월 동안 행자교육을 실시. 이 과정을 마쳐야 예비승려인 사미·사미니계를 수여한다. 이후 4년 동안의 강원 중앙승가대 통곡대 기초선원 등 기본교육기관에서의 소경의 과정을 마쳐야 비로소 정식승려인 비구·비구니계를 수여할 수 있다. 따라서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년6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출가자는 인천(天人)의 사표가 되는 수행자를 배출한다는 점에 유의해 입산자의 출가동기 교육정도(고졸 이상) 건강 신상 등을 면밀히 검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게 한해 입산을 허락하고 있다. 대만의 수계는 명나라 말기 권월

독체유사(見月講體律師)가 지은 《전계오범(傳戒五範)》을 근거로 삼단대계(三壇大戒)의 식을 거행한다. 1년에 2, 3회 정도 비정기적으로 거행하는 삼단대계에 따라 비구·비구니계를 받아 정식 승려가 된다. 지난 해에 4백여명이 수계를 받았다. 티벳은 승원에 입교한 것으로 승려로서 신분을 얻는다. 승원에서 16년간 반야와 불교논리학·종관학·이비달마구사론·계율 등을 배우고 시험을 거쳐 계쇄(dga bshes, 박사)를 부여받는다.

정성운·오종욱 기자

출가·열반절 주요법회



◇사랑스님



◇인환스님

16일 출가절과 23일 열반절까지 1주일을 전국의 사찰과 단체들은 기념 특별법회를 갖는 등 경건하게 정진주간으로 맞이하고 있다.

종흥사(주지 도각)는 이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8시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보내고 있다. 1주일 내내 오전 10시 서암스님 법회가 있고 이어 11시부터 12시까지 독경한다.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인환스님 초청 강설이 있고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참회기도에 들어간다. (02-355-4488)

조계사(주지 현근)는 이 기간 내내 오전 10시 설법기도대법회를 연다. 특히 조계사 산하 10여개 신행단체

중 흥 사 서암·인환스님 특별법회
조 계 사 신행단체 연합 정진기도
강남포교원 고은·강건기씨 초청강연

들은 16일부터 22일까지 오후7시에 연합 출가정진기도를 가져 단기출가 정진으로 보낸다.(02-732-2115)

5년여 출가 열반절을 특별정진기간으로 보내고 있는 강남포교원(원장 성일)은 17일부터 22일까지 오전10시 정진기도 및 사경법회를 연다. 특별 강연회도 마련 20일 오후7시30분 강건기교수(전북대)를, 21일에는 고은 시인을 초청 강연을 듣는다.(02-539-2631)

사경법회는 통도사 부산포교원(원장 심산)도 16일부터 23일 오전 10시에 갖는다. (051-816-2241)

석왕사(032-663-7771)가 출가절 수계식을 실시하고, 부산 감로사(051-809-0962)가 18일부터 22일까지 오전9시 30분 3차례 참회기도를 하며, 향림사(062-375-7600)가 16일 오전10시 고추영기천도법회를 벌인다.

시론

결림없고 멋있는 우리 옷

최근 한복등 우리옷을 즐겨입는 사람들이 늘고있다. 매일 '한복 입는 날'을 정한 문체부의 결단도 나왔고 토요일에는 한복을 입고 근무하는 동사무소도 등장하게 되었다. 고궁이나 사찰(은혜사)에 우리옷을 착용하면 입장료를 받지않는 등 우리옷입기가 사회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문화의식을 밝히는 청신호이다.

양복에 정복당한 민족열

아름다운 옷은 입고 벗을 때 편하고, 입어서 몸이 편하다. 남정네의 바지 저고리와 여인네 치마 저고리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이다. 입고 있는 동안 옷 속에 들어있는 몸이 아주 편해 싸매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 우리 한복은 몸을 낙낙하게 한다.

한복의 치수는 몸에 맞춘다기보다 몸을 편하게 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품은 몸에 낙낙하면 되고 좁은 몸에 알맞으면 되고 품은 몸을 험하게 하면 되는 것이 한복의 매무새이다.

양복은 옷맵시를 살리느라 몸을 불편하게 하는 옷에 속한다. 그리고 속옷 없이 입는 옷이 양복이다. 이러한 양복이지만 일하기에 편리한 옷이 양복이고, 한복은 거추장스러워 일하기에 불편하다

는 편지가 일반화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듯 된 깨닫은 조선 것을 낡은 것이라고 몰아 부쳤던 개화사상(開化思想)도 있었을 것이며, 일제(日帝)가 한국인의 얼을 없애려고 조선옷을 벗겨내고 극적 없는 옷을 걸치게 하려던 음모도 있었을 것이고, 광복 이후 역시 서양바람에 지식층이 한복을 버리고 양복을 입어버린 탓도 있다.

우리가 우리 옷을 벗어던지고 양복을 이제 우리 옷처럼 여기고 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복식현실(服飾現實)이 되고 말았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으면 흉이 된다. 아름답고 훌륭한 우리 옷을 버리고 양복을 입게 되어 부끄럽게 되었다는 복식(服飾)의 현실(現實)이 늦게나마 씩씩 트고 있어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최근의 '한복입기운동'이 한번 해보는 행사 정도로 그쳐서는 안된다. 문화를 행사거리 정도로 여가면 부끄러운 흥터만 생길 뿐이다. 그렇다고 양복을 벗어던지고 한복을

입기는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 이러한 복식현실을 인정하고 한복에 대한 재인식(再認識)을 하도록 유도해 재정신을 차리게 하는 계기로만 삼아도 엄청난 뜻이 있다.

한복을 입어 보게 하는 동기부여가 마련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한복이 아니라 입어 보게 되리라고 본다. 한복을 너무 비싼 예복으로 고집시킨 처사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알맞은 값에 한복을 사서 입을 수 있도록 생활한복을 널리 입게 하는 생활중속을 지리장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옷에 스며있는 우리의 정서를 몸으로 체험하게 되어 한복은 과거의 옷이 아니라 미래의 옷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한복은 우리의 정서를 담담없이 표현해 준다. 한복의 마름선은 어디나

직선이 아니고 둥근 곡선으로 이어진다. 바지통의 배출림, 옷소매의 배달림은 흘림, 치마의 주름과 자락이 불룩하게 만나는 흘림 등등 곡선의 흐름이 매듭도 그침도 없이 연이어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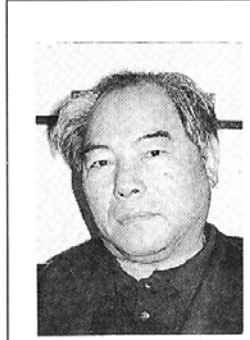
한복은 억지로 베고 잘라 구멍을 내지 않는다. 단추 구멍 대신에 옷고름으로 매고 허리 띠로 허리 줄에 매게 하는 한복은 자연스럽다. 한을 잘

라 호주머니를 붙이지 않아 무욕의 습성을 갖게 한다.

그리고 품과 좁 그리고 품을 험하게 하여 온 몸을 편하게 감싸면서 옷과 살 사이를 험하게 하여 겨울에는 몸을 따듯이 하고 여름에는 몸을 시원하게 한다. 흘림하고 열림한 한복은 결림없이 낙낙하게 사는 우리의 정서를 말해준다.

미래의 옷으로 되살려야

이처럼 따뜻하고 정겹게 서로 이웃하며 살라는 이웃사촌의 정서가 한복에 배어 있다. 이러한 한복의 복식정신(服飾精神)을 환기시킨다면 비록 양복을 입고 살더라도 한복이 체현하게 하는 이웃사촌의 정신이 새롭게 생활화 될 수 있다고 본다. 한복에 담긴 우리의 정을 잃지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정서를 바탕으로 양복을 입는다면 서양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양복을 입는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21세기를 앞두고 한복입기는 의미가 있다.



윤재근 (한양대 교수·국문학)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 불교 연중캠페인



문화용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요즈음 청소년들에게는 참회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사회나 가정, 또는 입시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진실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기반성 없이 눈치만 보며 잘못이 적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요령만 키워가게 된다.

이러한 학생들을 보면서 적잖이 걱정된다. 그것은 뉘우침이 없는 생활로 일관하는 삶은 발전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기(轉機)를 지나면서 거듭 태어나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가는 것인데, 청소년들의 삶이 늘 반

성없이 이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같은 현실을 놓고 고민하던 차에 책에서 읽은 신라시대 한 스님의 체담담은 감동적이었다. 신라 문무왕 때 해통(慧通)이라는 스

분심을 일으키자

님의 이야기이다. 스님이 출가하기 전 어느 날 수달피를 잡아 먹고 그 뼈를 마당에 버렸는데 다음날 뼈가 없어졌다. 이상해서 뒷자국을 따라가 보니, 그 뼈가 제 집으로 돌아가서 새끼 다섯마리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크게 놀란 스님은 뉘우치고 발심하여 출가를 하였다. 굳은 결

심으로 출가한 터였으므로 분골쇄신 수행하다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다. 당나라의 무외(無畏)스님에게 법을 구하러 3년을 극진히 모시며 기다렸으나 해동(海東)의 소국에서 왔다하며 무시하자 불화로를 머리에 이고 뜰에서 있으니 정수가 터지며 우리와 같은 소리가 났다. 이

생활 속의 불교 114

믿음과 의지를 밀천 삼아 황소처럼 걸어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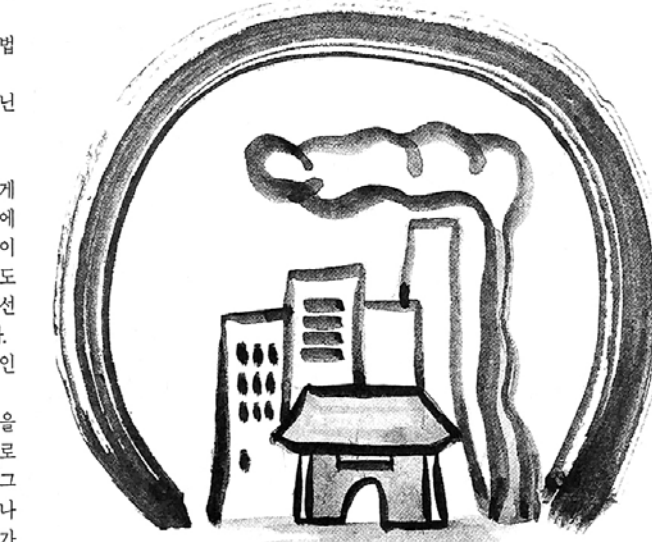
“생활을 떠나서 불법을 따로 구하지 말라. 생활을 외면하고 따로 어떤 것이 있다고 믿지 말라.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곧 불법이니 내가 있는 것이 불교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불교다. 생활을 불교식으로 바꾸는 것이 작은 일이라면 생활과 존재 그 자체가 불법임을 깊이 깨닫는 것은 큰 일이다. 불교를 생활화하기 보다 생활이 진리임을 알라.”

어떤 사람이 봄 소식을 살피려고 산과 들을 헤매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마당에 매화가 피어 있더라고 했다. 불법은 먼 곳에 있는게 아니라 바로 내 생활 속에 있다. 물 한모금 마시는데, 밥 한 술 떠넣는데 불법이 있다. 일하고 움직이는 거기에 불법이 있다. 말하고 생각하는 자리에, 손 한번 뻗고 발걸음 떼어 놓는 데에 불법이 있다. 불법은 법당에만 있는게 아니라 안방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다.

밥 짓는 일, 청소하는 일, 설거지 하는 일, 아이 돌보는 일에도 불법이 있다. 물건을 만드는 일, 농사 일에도 불법이 있다. 그러기에 풀 한 포기라도 불법 아닌 것이 없다고 한다.

스님들의 살림에만 불법이 있는게 아니라 중생들의 살림살이 구석구석에도 불법이 있다. 고로 사찰만이 도량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도량이 되고 법당이 된다. 내가 믿고 선 어떤 곳이면 그대로 여래의 집이 된다. 불법은 현실의 법이요 생활의 법인 것이다.

따라서 불법공부란 경전이나 예불을 통해서만 가능한게 아니다. 공부하기로 하면 언제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그래서 스님의 살림이나 중생의 살림이나 공부하는 데는 다를 게 없다. 법당에 가야만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산 속으로 들어가 틀고 앉아야만 공부가 되는게 아니다. 공부는 지하철 속에서도 되고



저자거리에서도 된다. 거기서 되지 않으면 산에 가서도 되지 않고 법당에 가서도 되지 않는다.

주부들이 밥 짓고 빨래하는 일에도 도가 있다.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공양의 도리가 있을 수 있고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이 세탁하는 도리가 있을 수 있다. 설거지를 하면서는 마음 비우는 도리를 열람할 수 있을 것이고 청소를 하면서는 청정한 마음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부하기로 들면 불법공부야 말로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만큼 쉽다는 비유도 있다.

마음공부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때로 시간을 떼어 낼 필요도 없다. 누구와 겨룰 일도 없고 누구와 자리다툼할 일도 없다. 세간의 어떤 일이 이와 같겠는가. 세간 일 쳐 놓고 돈 안들고 시간 만드는 일이란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불법공부를 어렵다고 한다. 빨리 원가를 이뤘보겠다는 욕심 때문이다.

그러나 보자. 대학 졸업장 하나를 따는데만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꼬박 16년이 걸린다.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가는던가. 석사 박사를 따자면 또 몇 년 세월을 더 투자해야 한다. 한 세상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그만큼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불법공부란은 쉽게 하고 싶어 한다면 원가 크게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불법은 생활의 법이니라 불법공부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냥 생활처럼 하면 된다. 필요하게 있다면 그것은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그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 보겠다는 의지뿐이다. 믿음과 의지를 밀천삼아 뚜벅뚜벅 황소처럼 걸어가면 된다. 황소걸음이 천리를 간다.

협찬 : 김태운·오복남